

주일에배

오전 8시 10분 7시
오전 8시 30분 10시
오전 9시 10시
오전 9시 30분 2시
금요일에 배 7시30분
주일에 배 10시

서울 교회 1600-0688

주소: 강서구 화곡동 KBS 8 방송국

Jesus Centered News

예수중심교회

2014년 5월 4일 (제740호)

주일에배

오전 8시 10분 7시30분
오전 8시 30분 10시
오전 9시 10시
오전 9시 30분 2시
금요일에 배 7시30분
주일에 배 10시

인천 교회 032-763-9191

주소: 연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서울)서울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거리 37호 Tel. 1600-0688, 02533-9191 Fax. 02532-9191 (인천) 인천시 서구 가좌동 472번지 Tel. 032763-9191 Fax. 032575-5730 http://www.jcc.tv (월요일에 배 작성 및 인터넷 발행)



병우 칼럼

진정한 효도란?

우리 아버지는 참 덕이 있는 분이셨다. 성향이 인복(仁福)이어서 그러신지 정말 어질고 심성이 고운 분이셨다. 사람의 진가는 그 사람이 죽었을 때 봐야 한다고 했는데,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동네 사람 대부분이 찾아와서 그간 아버지가 행한 선행에 대해 우리 가족에게 전해 주었다. 누가 아팠을 때 병환비를 대준 얘기와, 어느 집 아들의 대학등록금을 대준 얘기와, 가난한 집에 빛을 탐감해준 얘기와...

그런데 그 아버지가 어느 날 귀신이 되어 우리 가족 뒤편에 들어왔다. 와서 영영 물러나갈 곳이 없으니 내쫓지 말라고 애걸했다. 나는 억장이 무너졌다. 그렇게 좋은 아버지가, 선행을 그리 많이 하신 우리 아버지가 귀신이 되어 떠돌다니... 정말 충격이었다. 나는 울면서 나가라고. 안 나가면 막내를 불러 당신의 추한 모습을 보여줬노라며 귀신을 예수 이름으로 쫓았다.

그 후 더 이상 내 가족들이 아버지 꼴 나는 것을 볼 수 없어 가족을 위해 기도했다. 하여 지금은 우리 어머니가 편사가 되었고, 두 형제가 목사가 되고, 여동생과 아들, 그리고 조카까지 전도사로서 일하고 있다.

나는 가장 큰 효도, 진정한 가족사랑은 가족의 구원에 있다고 생각한다. 좋은 옷을 사드리고, 맛있는 것을 드리는 것도 좋지만, 무엇보다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급선무요, 가장 큰 일이라고 생각한다. 가정의 달이다.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다. 진정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믿음을 심어줘라. 진정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부모님을 예수 앞으로 인도하라. 이것에 내가 어머니 눈에서 눈물을 많이 뺐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효자라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여유다.

감사(感謝)를 의식화(意識化)하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가 하신 일을 녀도 하고 이보다 큰 것도 하리라'(요14:12). 지난 4월 28일, 장성 예루살렘기도원을 찾은 성도들을 제일 먼저 맞은 것은 벽을 담장에 쓰인 이 말씀이었다. 총회장 목사님은 금식을 마치고 후 계속 기도원에 머무시면서 호남의 목회자들, 교육전도사를, 그리고 직원들과 함께 기도원 개축 및 보수에 힘썼다.

또한 기도원의 모든 숙소도 새롭게 변신되어 있었다. 그동안 호텔 외의 숙소에는 에어컨이 없어서 성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작년부터 총회장 목사님이 직접 일반 숙소를 살펴보고, 곧바로 일반 숙소에도 에어컨설치를 결

그럴 습니까? 우리를 돌아보면 감사가 아닌 범사에 불만과 불평만 가득합니다. 그래서 마음에 평안이 없는 겁니다. 모세를 좇아 애굽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상 불만투성이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은 어찌하셨습니까?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탐지한 날수, 즉 40일의 하루를 일 년으로 환산하여 사십년간 광야에 거하게 하시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자들이 광야에서 죽음으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고전10:10). 그러나 다윗을 보십시오. 그는 자기를

하나님의 자녀로 백하였으니 감사하고, 더욱이 당신의 거룩한 종으로 부르사 능력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든 일에 '~ 때문에' 하면서 불평하지 말고, '~ 덕분에' 라고 습관화하십시오. 그러면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열매가 절로 맺힐 것입니다. 감사는 할말이요, 성장축진제요, 소득제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으로(結草報恩)이란 말이 있지요? 죽어서라도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갚겠다는 굳은 의지를 뜻하는 말입니다. 또한 감사란 느낌(感覺), 사례할 사(謝)로, 은혜를 느끼게 할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2014 춘계산상집회(4월 28일 ~ 5월 1일)

정하셨다. 이에 뜻 있는 장로님들과 성도들이 장판과 도배를 새로 했고, 밤마다 예언기도 달아서 호텔방에 비해 손색이 없을 만큼 말씀하게 단장해 놓았다. 기도원으로 가는 길에 비가 내렸다. 가물었던 땅에 단비가 내리고 있었다. 동일하게 예루살렘기도원 성전을 가득 메운 성도들의 가물었던 심령에도 단비가 내렸다.

등단하신 총회장 목사님은 '감사를 의식화하라'는 말씀으로 춘계산상집회를 시작하셨다.

'우리의 의식구조를 바꿔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범사에 감사하라'(살전 5:18)'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디 우리가

항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했습니다. 시편에 기록된 다윗의 시는 거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는 그의 아들 암살들에게 죽음을 당하면서도, 사울에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면서도 불평 대신 감사했습니다. 그런 다윗을 보고 하나님께서 '나와 마음에 합한 자'라고 칭하시며, 그의 이름을 예수의 족보에 오르게 하셨습니다.

저도 목회 30년 동안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교계에서 제명을 당하고, 어머니로부터 집에서 내쫓기며, 가족이 떠나는 등 안팎으로 견디기 힘든 세월이 제게 있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범사에 늘 감사했습니다. 나 같은 것을

마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지대하신 은혜를 느끼고 알진대 우리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에 불평을 일삼는다면 말이 되겠습니까? 매사에 감사하십시오. 감사의 의식화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므로 우리 삶 속에 평안과 축복이 넘치게 하실 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춘계산상집회를 영적 리콜 기간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다. 그 기초가 감사하는 삶에 있음을 깨닫는다. 집회를 위해 수고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선영서
jesus7857@gmail.com



목사님의 진두지휘로 진행된 기도원 공사



기도원 진입정면에 신축된 일층의 벽



기도원은 기도하는 곳이다



인기와 장수의 비결은 품질관리에 있다

이초석 목사 주일설교(히13:8)

유럽에서는 명품 백이나 시계를 자녀에게 물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새 명품제품을 소지하고 착용하는 것보다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그것들을 더욱 가치 있게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중에는 '아니, 그런 구석을 어떻게 들고 다녀?'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런 분은 명품이 왜 명품인지 모르는 겁니다. 명품은 낡을지언정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명품은 구식대의 것이라고 현대의 것에 비해 가치나 명성 면에서 절대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명품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만히 들여다봅시다. 초창기 우리 예수살렘 교단의 성도들은 참으로 뜨거웠습니다. 신앙 자체가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주를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았고, 하루 4시간 정도의 기도는 기본이었습니다. 그래서 굳이 제가 쫓지 않아도 다 귀신을 쫓았고, 방언을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명품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변했습니다. 식었습니다. 그 때 그 믿음, 그 열정, 그 사랑이 변하고 식었습니다. 신앙의 질이 떨어진 겁니다. 그게 가슴이 아픕니다. 그게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다른 교회 보다는 낫습니다." 이렇게 위로하지 마십시오. 명품은 다른 것과 비교해서 낫기 때문에 명품이 된 것이 아니라 객관적으로 최고인 품질이기에 명품이라고 한 것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원인이 있는 법, 우리의 신앙의 질이 떨어진 것도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

고는 하루에 7시간씩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것이 회복이 되고, 첫사랑이 붙일 듯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명품을 제작하는 회사도 첫사랑을 잃으면 순식간에 삼류로 전락합니다. 여러분이 목사요, 장로요, 권사요, 사모요, 집사라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삼류믿음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속빈 강정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 순례산상집회가 첫사랑을 회복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회복하느냐? 오전, 오후, 저녁 집회 시간에 전적으로 기도를 시킬 것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시켜 다시 명품신앙인이 됩시다.



총회장 이초석 목사

되게 하렵니다.

'리콜(recall)'제도라는 말을 들어보셨지요? 이것은 소비자 보호 제도의 하나로, 시장에 유통 중인 제품에서 소비자의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사업자가 스스로 그 제품을 회수해 수리, 교환, 환불, 파기하게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리콜제도는 자동차 회사에서 특히 활성화되어 있는데요, 회사 측에서 어느 제품에 대해 리콜을 실시한다고 하면, 그 차를 가지고 지정된 정비소로 찾아가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받아 결함을 제거해야 안전합니다. 영적 리콜제도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단하시고 결함이 발견되면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 때 통지를 받고 정비소에 가야 하듯, 하나님의 사인이 있으면 얼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정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로 이어져 영혼이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이번 산상집회는 영적 리콜 실시 기간

입니다.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식어가는 믿음을 일으키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비소에 오면 자동차를 아예 바꿔 주면가, 아니면 부품을 바꿔 새롭게 하지요. 이번 기도원 집회에서 믿음에 저속되는 것이 있다면 버려야 합니다. 더 속어는 성령으로 거듭나 온전히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리콜제도도 기한이 있습니다.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 측에서 정해진 기간 내에만 가능합니다. 영적 리콜도 기간이 있습니다. '귀찮은데 무슨 리콜이요? 나중에 하지.' 그러다가 불현듯 세상과 이별하여 주님 앞에 서게 되면 어찌 합니까? 이번 기도원 집회에 와서 함께

기도합시다. 꺼진 불을 혼자 지피려면 어렵습니다. 그러나

헛헛 타는 불 속에서는 다른 장작도 잘 타입니다. 함께 기도하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성령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맺힌 자는 명품신앙인입니다. 사랑과 화평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절제를 지닌 자는 그야말로 명품이라 갈5:22-23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께도 인정받는 자가 됩니다. 베드로후서 1장에 있는 믿음의 8중계, 믿음에 덕을, 덕에 지식을, 지식에 절제를,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 경건에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에 사랑을 공급하는 자 역시 명품신앙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벧후1:5-7). 또한 누가복음 37장에 있는 것처럼, 남을 비판하지 않는 것, 정죄하지 않는 것, 남을 용서하는 것도 명품신앙의 절대 요건입니다. 명품신앙인은 믿음 뿐 아니라 인격으로도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 하

기 때문입니다.

명품의 특징은 인기와 장수입니다. 여러분도 인기와 장수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명품신앙인이 되십시오. 명품신앙인이 되는 길은 품질관리에 있습니다. 자신을 기도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명품인생이 되는 길은 기도인생을 사는 것이다

그 샘플로 믿음의 선조, 다니엘을 추천합니다. 다니엘이 바리새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왕의 시대에 까지 장수하고 추앙을 받은 이유는 바로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단6:28).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위협에도 불구하고 하루 세 번 예루살렘을 향하여 기도했던 것이 그가 인기와 장수를 누린 이유입니다(단6:10).

우리는 자고로 명품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어 이상 어떤 명품이 있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품인생을 살지 못하고, 명품신앙인이 되지 못하는 까닭은 첫사랑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첫사랑을 잃은 것은 기도를 잃었기 때문이고요, 다니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은 오늘날도 늘 기도로 사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내 삶이 어떨까?', '왜 나는 되는 꼴이 없을까?' 이렇게 자신의 삼류인생을 탓하지 말고, 나의 삼류신앙, 기도하지 않는 신앙을 탓하고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만이 변질된 신앙을 깨달게 할 것이고, 잃어버린 첫사랑을 깨달게 할 것이며, 세속화된 내 신앙을 깨달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기도만이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삶 전반을 회복시키고, 충성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매일, 무시로 기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예수님은 역사상 가장 위대하신 분입니다. 한 마디로 어찌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명품이십니다. 그 예수님도 기도를 습관화하셨습니다. 그러니 기도해야 합니다. 아니 기도하십시오. 순례산상집회에 가능한 한 참석하여 함께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모두 질적 향상을 위해 질주하여 명품인생, 명품신앙인이 됩시다. 할렐루야!

질적 향상을 위하여 질주하는 자가 되자

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하루도 쉬지 말고 하라는 것이 기도입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살전5:17). 무시로 하라는 것도 기도입니다(렘6:18). 곧 기도는 믿는 자에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기도의 부족은 모든 것의 부족이고, 기도의 풍족은 모든 것의 풍족이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있는 전도사가 전하듯 세계 이런 간증합니다. 자기가 어느 날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 내가 명색이 전도사인데, 왜 내 집안 꼴이 이 모양이고 왜 내 남편 하는 일은 이러 엉망일까? 나는 전도사이면서 왜 주의 일은 하지 않고 어떻게 허송세월을 보내고 있는 것일까?' 자신을 돌아보니 참으로 한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날, 설교를 들다가 제가 하루 7시간 기도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정신이 번쩍 나더랍니다. '그래, 기도하지 않아서구나.' 그래서 깨달

153선교 및 구제 후원금 안내

MS ISOMM

1060700-0688

명품인생

농협 1379-01-001903

국민은행

695001-01-122494

해남주·해수종교회

:: 객원원림 ::

:: 서울여대 '사랑의 업서' 공모전 대상작입니다 ::

깨달으면 복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면서 참으로 애통하고 황당한 마음을 금할 길 없다. 선장과 배를 다루는 선원 전원이 첫 번째로 구조되었다는 소식에 더욱 어안이 빙빙하다. 배가 좌초되어 침몰하고 있을 때 가장 필요했던 인員들이 모두 배를 떠난 것이다. 수없는 생명들을 배 안에 두고

모르긴 해도 그들은 평상시에 많은 어들의 존경을 받고, 자신들도 어느 정도 인생의 자부심과 명예를 가지고 살았을 사람들이리라. 그러나 그들은 생사의 갈림길에서 모두가 살아야겠다는 본능적이고 반사적인 생각에 사로잡힌 것이다. 단 한 사람도 양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사람이 없었다. 자신들의 사명과 명예를 생각한 사람이 없었다. "선장님, 이런 아님니다.", 혹은 "저는 남았습니다." 라고...

나도 저런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본능적일까? 그럴 수 없다고. 발도 안 댈다고 속으로 답한다. 그런데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도 그랬었다. 위대한 다윗도 밧세바라는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본능적 실수를 저질렀고, 주세자 베드로도 승승의 죽음 앞에서 3번씩이나 그를 모른다고 본능적으로 부인했다. 그러나 그들이 다른 점은 곧 깨달고 돌아서 새사람이 되었다는 것이다.

인간과 짐승이 달라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본능적 행동을 이길 수 있는 의식구조가 필요하다. 비상상황 때 본능적으로 행동하지 않으려면 평상시에 의도적으로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생각 속에 반복적으로 각인시켜야 한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세뇌시켜서 위기 때 사명감을 발

동시켜 본능적인 행동을 하지 않도록 훈련시켜놔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늘 기도도 준비해야 한다. 평상시에 삶 속에서 지극히 작은 일에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행동하는 습관을 들여가면서, 모 교회에서 성전건축을 한다니까 교회 중추적인 인물이 슬쩍 피해 댄 교회로 갔단 이야기를 들었다. 온 세상 교회 짓는 데마다 가서 도와주는 것도 아니고 자기 다니던 교회 건축하자는 것인데... 부모님 모실 기회가 오니까 처자식 데리고 온 데간데없이 잠적해버린 후에 이야기도 들었다. 남의 부모 모시자는 것도 아니고 저를 낳고 길러주신 어머니 모시자는 것인데... 그저 안타까울 뿐이다.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위기가 와야 알 수 있는 것이다. 진짜는 위기 때 진가를 발휘한다. 목숨을 버려가며 학생들을 구한 신실 승무원, 사무장. 교사를 이야기가 가슴을 뭉클하게 한다. 믿음의 많은 선전들도 위기 때 자신들의 신앙을 멋지게 보여주었다. 아브라함은 여자를 바쳐라 할 때 당당하게 하나님 편에 섰고, 용모 극한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자신이 진짜임을 증명했다. 다니엘도,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네고도 죽음 앞에서 당당하게 목숨을 버려가며 자신이 하나님 편에 섰음을 보여주었다. 위기를 자신들의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멋진 기회로 삼은 것이다. 우리도 늘 깨어 준비하자. 위기가 오면 멋지게 승리하는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되기를 기원하며.

여시대 목사

어머니

나에게 티끌하나
주지 않는 걸인들이
내게 손을 내밀 때면
불쌍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나에게 전부를 준
당신이 불쌍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나한테 밤 한번 사준
천구들과 선배들은 고마웠습니다.
답례하고 싶어 불려냈습니다.
그러나 날 위해 밤을 짓고
밤늦게까지 기다리는
당신이 감사하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드라마 속 배우를 가정사에
그들을 대신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나 일상에 지치고 힘든

당신을 위해
진심으로 눈물을
흘려본 적은 없습니다.
골방에 누워 아파하던
당신 걱정은 제대로
해 본 적이 없습니다.

친구와 애인에게는
사소한 잘못 하나에도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에게 한 잘못은
셀 수도 없이 많아요
용서를 구하지 않았습니

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제서야 알게 되서 죄송합니다.
아직도 전부 알지 못해
죄송합니다.



:: New York Report ::

지금 당장 미디어를 끊으십시오

유학 오기 전에 형편을 앞에서 간증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하지 못해서 두고두고 후회했던 말이 있었는데요. 뉴욕에서 공부하면서 그 생각이 더욱 확고해졌기 때문에 전하려고 합니다. 지금 일상생활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학생들은 학교에서,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직장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시겠지요. 그밖에 다양한 모습으로 다양한 시간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믿습니다. 저의 시간이 되면 매일 챙겨보는 드라마를 시청하시거나,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도 많이 할 것입니다.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으로 여가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많겠지요. 예능이나 개그 프로그램을 즐겨보는 분들도 많을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러한 일상적 활동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콘텐츠들은 영감의 산물입니다. 많은 예술가들이 떠오르는 영감으로 예술작품을 만드는데 한 번쯤은 어보셨을 것입니다. '어젯밤 꿈에서 영감을 받아 작곡했습니다.' 라든가 '길을 지나다가 문득 영감이 떠올라 써 내려갔다.'

는 말은 이상한 말이 아니지요. 그렇다면 그 영감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누가 그 영감의 주인입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인간은 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인간에게 영혼이 있고 그 영혼이 어디에 속했느냐에 따라 두 분류로 나뉘질 수 있을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사람과 세상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람은 중심에 성경님이 계시지만, 세상에 속한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영혼이 어디에 묶여 있을지는 굳이 말하지 않더라도 성경님이 아닌 것은 당연히 것입니다. 그렇다면 영감을 받아 만들어지긴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감동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음악, 미술, 영화, 책, 게임 그 모든 미디어들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휴대 폰에 게임을 깔고 틈날 때마다 레벌을 올리고, 가요를 찾아듣고, 드라마를 보는 것으로입니다. 그 내용을 보십시오. 칼로 적을 죽이는 것, 힘껏고 숨을 추며 유혹의 말을 건네는 아이들을, 불륜이 단골소재인 드라마들... 언제부터 남녀 간의 혼외관계가 당연시 되었습니까? 언제부터 남자아이들이 아들을 보는 것이 당연하게 되었습니까?

까?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요. 미디어의 폐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것이 있습니다. "당장 스마트폰의 게임을 지우라." 세상 문화를 모르면 천구들과 말이 통하지 않아 안 된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길거리에 다녀보면 음악이 끊이지 않고 나오고, 식당에는 항상 TV가 틀어져 있지요, 우리는 굳이 직접 찾지 않아도 될 만큼 충분한 미디어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어떤 세상물정 모르는 한 순진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크리스천 예술 전문가로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세상의 미디어에서 멀어지시기 바랍니다. 너무 극단적이라고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차든지 듣든지 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레 3:15). 극단적이요, 세상과 하나님 양쪽에 발 하나씩 걸치고 살기에는 시대가 막혔습니다. 결단을 내리시고 매일 매 순간을 하나님을 묵상하며 더욱 하나님께 가까워지는 나날로 가꾸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김승아

gratiasul@gmail.com



귀를 기울이세요

지난달 있었던 세월호 침몰 사고는 많은 국민들 어게 큰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300명이 목숨을 잃은 실종자들이 며칠째 걸친 구조작업 끝에 세습한 주검으로 발견되었고, 속사나 하는 마음으로 며칠 밤을 새며 항구에서, 또 배 위에서 그들을 기다렸던 가족들은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전 국민이 기적 일어나길 바라며 간절히 기도했지만, 좀처럼 늘지 않는 구조자 명단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달래야 했습니다. 이번 일이 더욱 안타까운 것은 사고 당일 위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배에 있던 선장을 비롯한 선원들과 구조하는 사람들이 초기 대응을 잘했다더라. 희생자들을 많이 줄일 수 있었던 인제(300여명) 여겨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제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은 사고관계자들을 정죄하고 처벌하는 데에 사회분위기가 차증되던 것과 정부와 언론에 대한 대중의 불신이 지나치게 커졌다는 점이었습니다.

이번 사고를 통해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인간과 나약함과 완악함, 죄악된 모습까지 가감 없이 보게 하셨습니다. 약한 마귀는 그가운데서 우리들을 비방과 정죄, 불신과 미움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나라와 민족이 이번 일을 통해 부패함을 깨닫고, 큰 아픔을 딛고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 되어 힘을 모으는 것이 아닐까요.

산책주 전도사

blasadna@gmail.com

당신은 어떤 어른인가요?

며칠 전, 친구에게 어어없는 이야기를 하나 들었습니다. 친구는 빌라에서 어린 딸을 키우며 사는데,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사는 동창에게 기본 나쁜 소릴 들었다고 합니다. 내용인즉슨, 요즘 유아원이나 유치원에선 빌라에 살면 아이가 왕따를 당한다더라. 아파트도 작은 평수에 사는 아이들은 다들 안 놀려고 한다더라. 너도 아파트로 이사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요. 아파트 평수가 친구나 아니냐의 기준이 되는 세상입니다.

그런 세상을 만든 건 누구일까요? 부모의 직업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태도를 달리하는 엄마, 친구의 자책 요인으로 집 평수를 조사하는 아빠, 그런 어른들에게서 아이들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힘을 때 서로 힘이 되어주고, 어려울 때 함께 아파해주고, 가족에게 말 못할 고민을 털어놓을 수 있는 진정한 친구, 요즘 아이들이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합니다. 내 아이가 왕따 당할까 봐 아파트로 이사하고 집 평수를 늘

리는 것이 바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을요. 바뀌어야 할 것은 집 평수가 아니라 잘못된 현실이라는 것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가 그러니까, 남들이 그러니까, 나 혼자선 어찌할 수 없으니까, 받아들이고 타협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잘못됨에 당연한 세상이 됩니다.

세월호 침몰 사건을 지켜보면서, 많이 아팠습니다. 승객들을 버린 선장부터 막말하는 정치인까지 모든 기성세대들이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많은 기성세대들도 젊었을 때는 그 위의 기성세대를 비판하며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고 다짐했는지 모릅니다. 처음부터 자기 밖에 모르는 사람이지는 않았을 겁니다. 먹고 살기 바빠서, 내 자식을 위해서, 세상이 이러니까, 하나 둘 타협하다 보니 지금의 기성세대가 되었겠지요.

대한민국이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나부터 달라져야 합니다. 공무원, 정치인, 기업인에게 면지는 비판의 손가락, 나 자신에게도 면져야 합니다.

다. 가장 빠르게 가장 확실하게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남이 아닌 나 자신이니깐요. 내 잊속만 챙기는 것이 아니라 배고픈 자를 먹이고, 아픈 자를 돌봐주고, 힘든 자를 위로하고, 사람을 외모로 평가하지 않고, 재산으로 차별하지 않고, 규칙을 지키고, 요령 피우지 않고, 정도(正道)를 가는 사람. 예수님 같은 어른이 되어야 합니다.

하루하루 나와 당신으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를 통해 이 땅에 다시는 아픈 아기를 낳지 않게,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빛이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에게 비취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마5:13-16).

신은래

dopal0203@naver.com

Good News

전도를 하다보면 가끔 어린 이야기를 들을 때가 있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왜 그 모양이냐' 나는 믿고 싶어도 그런 사람 꼴 보기 싫어서 믿기가 싫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되묻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 어릴적에 생선을 고를 때 어떤 것을 고를까요?' 동문지같은 질문에 대답이 없습니다. 연이어 묻습니다. '오래 되어 써서 냄새나는 것을 먼저 집어 드시죠?' 발도 안 되는 이야기에 화를 내며 대답합니다. '예게 여보쇼, 그럴 사람이 어디에 있겠소. 갓 잡아 올린 싱싱한 것을 먼저 골라잡아여.' 그럴 때 진지하게 말을 이어 나갑니다. '맞습니다. 선생님,

교회에도 이런 저런 사람들이 있지만 평생 부리고 먹어 안 되는 사람을 보고 실망하지 마세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바른 순서일 것입니다.' 그러면 머쓱해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신앙생활을 할 때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 무조건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롬3:10)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신분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아울에 수 그리스도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게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모든 죄를 사하시

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참으로 기쁜 소식이며 복된 소식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목욕탕입니다.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도 목욕탕에 들어가 목을 때를 벗기고 나면 신사로 탈바꿈하게 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 있느니라.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마2:17).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 받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사람 때문에 예수님의 내미는 손 뿌리치지 마시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어린 예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히12:2)

성현평 목사

sanghwapsung@hanmail.net

성축(聖祝)

기독교 신앙이란 죄의 사유(赦宥-죄를 용서해 줌)와 의인(義認-의롭다 인정함), 그리고 계속되는 하나님의 은총의 사실에 대한 부단한 시인(承認) 외에 다른 것이 아니다.

신재(信賴)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란 이미 다 이루어진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아직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심자가 위에서 모든 것이 다 끝났다. 우리에게 남겨진 전생은 존재하지 않는다. 다 주님께서 홀로 싸우셨고 대승을 거두셨다. 그것은 단편의 승리였다.

신자란 그의 승리에 값없이 편승(便乘)하는 자이다. 이에 주저하지 말라.

우리의 신앙은 종교적 감상(Sentimental)이 아니다. 담대한 시인이다. 점령군의 극락이다(마12:29). 죄와 사망에 대한 특의(特權)의 조소(嘲笑)이다(고전15:5).

"그가 찰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었.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사53:5).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 하였음이라" (롬8:2).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골1:13).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후5:17).

"다 이루었다" (요19:30).

이상은 모두 과거완료(過去完了)의 말 씀이요. 약속(約束)이다. 선뜻 시인(承認)하여 당신의 사실(事實)이 되게 하라.

신기류 목사

abba777@naver.com

::나도 건강할 수 있다::

ADHD란 무엇인가?

주의력이 부족하고 학교응에 실패해 ADHD 진단을 받고 정신과약을 복용하는 아동이 늘고 있다. 국내 초등학생 연구에서는 ADHD 진단율을 9.6%로 보고 있으며 이중 60~80%가 성인되어 어서도 증상이 지속된다고 한다.

ADHD(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는 주의를 지속하지 못하고 산만하며 과다활동, 충동성 등을 보이는 것이다. 주로 반항장애나 불안장애가 동반되며 우울증과 학습장애가 동반되기도 한다. ADHD의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유전적 요인과 신경학적 요인, 애착의 불안정으로 보고 있다.

ADHD는 행동 조절이 어렵고, 잊어버리고 반복적으로 실수를 해 가정이나 학교에서 자주 혼나거나 친구들과의 관계도 좋지 못하다. 이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 대인불안이나 자존감 저하의 원인이 되기도 하고, 교통사고나 속도위반,

신체상해의 위험률도 증가시킨다. 미국과 스웨덴은 25%의 청소년들을 성인 ADHD로 보고하고 있다.

ADHD의 세 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의력 결핍형'은 자세한 지시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고 속세나 다른 활동에서 실수를 많이 한다. 반항을 하는 것이 아님에도 지시를 따르지 못한다. 둘째, '과잉 행동형'은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손발을 자주 움직이며, 말을 너무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인다. 부적절한 상황임에도 돌아다니거나 움직인다. 셋째, '충동형'은 자기 차례를 기다리기 힘들고 질문이 끝나기도 전에 답을 한다거나 다른 사람의 대화에 자주 끼어들고 방해하기도 한다. 성인의 경우 일을 잘 벌이지만 마무리가 못하고 화를 잘 내는 것도 ADHD 때문일 수 있다.

ADHD 증상이 심할 때는 약물치료가 빠르게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만약

치료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이와 함께 양육자의 정서적 지지와 규칙적인 운동, 놀이, 예술 활동, 기도와 명상도 도움이 된다.

ADHD는 때때로 자기가 좋아하는 것에 과도한 집착을 보일 수 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디슨, 뉴턴, 레오나르도 다빈치, 아인슈타인뿐 아니라 카네기, 디즈니, 포드, 빌게이츠 등도 ADHD를 가진 채, 본인의 장점을 극대화해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진 삶을 살지 않았는가!

자녀(또는 배우자)가 ADHD를 가지고 있더라도 너무 절망적으로 생각하지는 말자. 각자의 강점을 발휘해 ADHD로 인한 어려움을 넘어설 수 있도록 지지해주고 기도의 조력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Dr. 김재현

keozolmed@hanmail.net

가족들이 서로 결함한다는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일이다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권능도 거꾸도 아니다
서로 사랑하는 마음이다

내 집 내 삶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상에 돌린 자식은
어린 갈렙나무 같으리다
(시편 12편 3절)